

광산구, 청소년자율공간 확충 공모 선정

3억7000만 원 확보…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조성



광산구가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자율공간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7000만 원(시비 3억 2600만 원, 구비 44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휴식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 조

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비아 청소년 자율공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남다누리체육센터 3층에 청소년 자율공간을 조성하게 됐다.

하남다누리체육센터는 인근에 하남초등학교, 장덕중학교 등 교육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다. 또한 이곳은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광산구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5월 공모사업 매칭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후 공간설계부터 운영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북구상생 힐링투어 추진…여행업계 활력

오는 21일까지 참여 업체 25개사 모집…5천만 원 투입

북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 소재 여행업계가 북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면 최대 190만원의 지원하

는 사업이다. 여행 상품은 1일 코스로 북구 관광지 1개소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투어 운영에 제공되는 중식과 간식, 차량 임차 시 북구 소재 업체를

이용, 최소 인원 15명 이상 등이 지원 조건이다.

구비 5000만원을 투입해 최대 2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21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업체를 모집, 5월부터 관광 상품 운영에 나선다.

북구는 이번 투어 사업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동행, 스토리텔링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광주시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견사·묘사수시 모집…1365 누리집 통해 접수



광주시동물보호센터가 유실·유기동물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한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견사 오전·오후 각 3명, 묘사 오전·오후 각 3명 등 하루 총 12명의 자원봉

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봉사활동은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과 일요일에 할 수 있으며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호동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환경정화봉사, 건강관리, 사람과의 교감을 위한 산책봉사, 미용봉사 등을 수행한다.

매주 토요일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와 질병감염 예방 등을 위해 자체 환경정화 및 방역의 날로 운영된다.

봉사활동 신청은 1365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10월 완공했으며 현재 유기견 250여마리, 유기묘 150여마리가 보호되고 있다.

/김도기 기자

서구 ‘24시간 통합돌봄’ 제공

안심콜·안심출동·안심돌봄 등 의료 중심 개편



서구가 ‘서구형 통합돌봄 로드맵’을 만들어 24시간 신속한 대응과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구는 ‘24시간 안심콜 - 24시간 심출동 - 24시간 안심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에서 이동지원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4시간 안심콜’은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전화(062-350-4000) 한 통으로 접수부터 상담,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부서와 돌봄지원기관,

/조선주 기자

돌아온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수업 참여 거부

대규모 제적 앞두고 복귀…의료정책 반발 심리로 수업 거부 등 동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동맹휴학에 나섰다가 최근 복학 절차를 마친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 중 대다수가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지난달 최종 복학 신청을 마친 재적 학생 중 의예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1학년만은 온라인 형태로 정규수업을 시작하고 이후 수업 참여 상황에 따라 대면 강의로 전환키로 했다. 전날부터 대면 강의 형태로 전환했

지만 실제 강의실은 대부분이 비는 등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의대 역시 복학생·신입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해 대다수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그쳤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을 앞두고 일단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로 수업 거부 등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대·조선대 모두 학생들의 수업 결석에 따른 유급 등 학사정책 조처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습 수업이 많은 본과생들의 경우 수업 파행을 장기간 관망할 수만은 없다. 학사 징계도 불가피하다.

각 대학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향 등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선은 학생들의 결석에 대한 유급 등 조처는 고려치 않고 있다. 예과생들보다도 본과

생의 경우 실습 강의 비중이 커 수업 결석이 장기화되면 향후 졸업과 수련의 과정에도 여파가 만만치 않다. 학과 교수 단위로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교육부는 수업 준비, 기숙사 등 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으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예과생을 포함한 의대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느냐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도기 기자

‘날 풀리니 야밤 질주’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사고 ↑

날이 따뜻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자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광주 경찰청장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B(19)군을 치고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신가동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 C씨도 자전거를 탄 D(12)군을 치고 달아났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B·D군은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등학생 D(16)군은 보행자 E(55)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거나 차도 오른쪽 갓길로 다녀야 한다. 인도로 통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과 승차 인원 1명 규칙도 지켜야 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인구문제 “지금 우리를 지키는 과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인구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제”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박병규 청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이어가기 캠페인’에 나섰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지목에 캠페인에 동참한 박병규 청장은 “인구문제는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니다”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아이와 청년, 노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젊은 도시 광산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규 청장은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지목했다.

광주 경제계 “노조 ‘GGM 갈등 중재안’ 수용 촉구”

광주상의·경총 “안정적 생산·경영 정상화 위해 협력해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는 8일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갈등 현안에 대한 중재안을 노조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광주상의와 광주경총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와 GGM 경영진은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GGM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조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경영진과 노조 모두에게 GGM 설립의 근간이 되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에게는 노조 사무실 제공과 조합비 일괄결제, 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 등을 권고했고 노조에게는 35만 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생산 물량 확대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권형안 기자

광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지원

10일부터 누리집 통해 신청…근로자 200여명 대상

광주시가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신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하면 100만원, 6개월 때까지 근무하면 추가 100만원씩 1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이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어야 한다. 서류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2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교실 속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5·18 계기교육 자료 배포

광주교육청이 5·18 교육과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 초등 4명·중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 교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로운 5·18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OX 퀴즈·카드 짝 맞추기·활동지 등을 활용, 초등 저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5·18의 의미를 잘알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생과 초등 고학년생을 위한 자료를 각각 분리·제작했다.

중학생 대상 자료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소개하며 5·18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대상 자료는 5·18 당시

유신헌법과 현재의 헌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5·18 역사외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계기교육 자료를 이달 중 담당 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5·18 시작지 걷기 축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민주평화대행진, 5·18 청소년 문화제 등 학생·학부모·직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